

# 경협 확대, 北 비핵화 실천에 달렸다

## ■ 남북협력시대 꽃피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기치로 내건 '실용주의'가 남북관계에는 어떻게 적용될까? 북한은 남쪽의 새로운 정부와 어떤 관계를 설정하려 할까?

10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올해 남북관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정책에서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북핵 폐기 ▲남북경협 등이 어떻게 진행될까이다.

이 당선자는 당선 직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남북간 가장 중요한 현안은 북핵폐기"라고 강조한 뒤 "북핵이 폐기됨으로써 진정한 남북 경제교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북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는 것이 체제유지와 주민들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폐기가 본격적인 경협을 선행 조건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당선자는 또 북이 핵을 폐기할 경우, 체제도 유지할 수 있을 것임을 공언했다.

이 당선자가 후보시절 발표한 (비핵, 개방 3000)도 한반도의 비핵화

성격의 경협사업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이명박 당선자 진영은 북미관계의 종속변수로 남북관계를 본다"면서 "북미관계가 잘 되면 남북관계도 잘된다는 점에서 비핵화 프로세스가 올해 남북관계의 가장 큰 변수"라고 강조했다.

북-미 간 관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신고 시한 역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설령 비핵화 프로세스가 좀 더더욱 결렬 위기 수순을 밟지는 않고 최소한 위기는 관리돼 남북관계가 경색되거나 후퇴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핵정책의 완전 실패가 내년 11월 대선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 하고 북한도 지난해 10월 핵실험 때로 돌아가 다시 금융

## 美도 北도 남북관계 경색 원치 않아

제재 등을 받는 상황을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순조로울 경우 차기 정부는 적어도 참여 정부의 기존 남북합의를 원칙적으로 존중하고 필요한 부분은 조정해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의 불성실한 핵프로그램 신고로 비핵화 프로세스가 교착국면에 빠질 경우 남북관계 역시 경색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차기 정부가 굳건한 한미관계 복원을 강조한 만큼 이런 자세가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서재진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정보센터장은 "참여정부는 중국에 의존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했다"면서 "그러나 차기 정부는 미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과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한미공조를 통해 북핵을 해결하겠다는 방향을 잡았다"면서 "북한 입장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와 오히려 호흡이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권 초반에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에 놓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정철 교수는 "이 당선자 진영은 북한 문제를 성장동력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서 "따라서 차기정부가 당장 대북정책에 이니셔티브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교안보연구원 전봉근 교수는 "북한도 남쪽의 새로운 정부와 일할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도 남쪽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현재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미공조 통해 핵 해결에 중점"

결국 새 정부가 어떻게 해 나가는 지가 북한의 태도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새 정부가 기존의 남북간 합의를 존중하고 이어간다면 북한도 적극 호응할 것이지만, 변화를 꾀할 때는 북한도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경우 남북관계는 내년 6월까지 정체에 들어갈 수 있다. 이명박 당선자가 2월 말 취임 후 3~4개월 동안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6월 이후에야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핵 가진 자와 대화는 없다"던 김용삼 정부에 대해 북한이 취했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이 재연될 우려가 제기된다. 상반기까지 남북관계에 공백이 생기면 북한은 자연스럽게 핵문제를 포함한 대미 관계에 외교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주정기자 jnews@연협뉴스

## "올해는 北에 기회이자 위기"

### 대미관계 개선·후계구도 관심

"2008년은 북한에 '기회인 동시에 위기'의 해가 될 것이다."

"2008년 북한"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핵문제 진전에 따라 올해가 북미관계정상화와 이를 통한 북한사회의 국제사회 편입의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동안 미뤄왔던 후계구도를 마련할 것인가도 초미의 관심사다.

△대미관계 개선되나=북한이 대외 관계에서 첫 자리에 놓고 있는 북미 관계는 2006년 10월 핵실험으로 조성된 위기 이후 2·13합의 등 6차례의 성과와 함께 오랜 반목을 털어내는 과정에 있다. 지난 연말 조시 부시 미국 대통령의 친서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구두 답신,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오는 2월 평양 공연 등은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현재 북미 관계는 북한의 핵 신고와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금 해제 등의 상충 조차라는 고비를 넘지 못하고 주춤하는 상태. 낙관적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앞으로 2~3개월간은 양측이 밀고 당기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후계구도 마련하나=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올해 66세가 됐다. 아직 김 위원장의 후계자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정통한 대북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북한이 지난 연말 폐막한 전국지식인대회에서 김 주석의 생일 100일을 맞는 "2012년에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야 한다"며 강성대국 목표 기한을 처음 밝힌 것은, 후계자에게 물려줄 정치·경제·외교적 유산을 준비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2012년은 김 위원장의 나이가 70세가 되는 해인 만큼 후계구도의 윤곽이 드러날 시점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 북한은 내년부터 5년간 후계 준비에 주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주정기자 jnews@연협뉴스

## 새정부, 백두산 관광 등 재검토

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여 한반도에 비핵화가 달성되면 10년 안에 북한의 1인당 소득이 3천달러가 되도록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당선자 측의 대북정책팀에선 올해 5월 개시될 백두산 관광사업 등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남북경협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완전한 북핵 해결 전까지는 인도적인 지원사업 외에는 그 어떤 지원사업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 당선자의 생각에 따라 대북지원



### 태백산 눈꽃 기차여행

**\* 일정** (전년 열차 1/18, 1/25 // 임시 열차 1/5, 1/19, 2/6, 2/12)

날짜	고유번호	시간	일정
제1일	19300	평주역	평주역-요동역 구간 열차에서 탑승권료 수납
제2일	20000	평주역	평주역-함백역/함백역-도회역/도회역-함백역
제3일	00000	평주역	평주역-도회역/도회역-함백역/함백역-평주역
제4일	14000	평주역	평주역-도회역/도회역-함백역/함백역-평주역
제5일	14300	평주역	평주역-도회역/도회역-함백역/함백역-평주역
제6일	22000	평주역	평주역-도회역/도회역-함백역/함백역-평주역

단체요금 (20명) 82,400원 (대인, 경로) / 72,400원 (소년, 소녀)  
 단체요금 (10명) 92,400원 (대인, 경로) / 72,400원 (소년, 소녀)

※ 주요사항 : 평주역에서 전세버스, 임종, 식사(초식) 여행사 보편  
 ※ 평주역은 산행장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젠, 등산화, 장갑, 모자, 손전등, 보조배터리 등) 평주역은 19:30에 출발합니다.

### 개성관광 기차여행

12년 최장거리 280,000원 (대인, 경로, 2인, 2인, 2인, 2인, 2인, 2인)  
 ※ 주요사항 : 평주역-함백역 구간 열차에서 탑승권료 수납  
 ※ 평주역에서 전세버스, 임종, 식사(초식) 여행사 보편  
 ※ 평주역은 산행장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젠, 등산화, 장갑, 모자, 손전등, 보조배터리 등) 평주역은 19:30에 출발합니다.

### 개성관광 기차여행

12년 최장거리 280,000원 (대인, 경로, 2인, 2인, 2인, 2인, 2인, 2인)  
 ※ 주요사항 : 평주역-함백역 구간 열차에서 탑승권료 수납  
 ※ 평주역에서 전세버스, 임종, 식사(초식) 여행사 보편  
 ※ 평주역은 산행장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젠, 등산화, 장갑, 모자, 손전등, 보조배터리 등) 평주역은 19:30에 출발합니다.

(주) 대원여행사 대표 전화 062) 265-7000 Fax 024-7272 평주역시 서구 봉동동 418-17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대원빌딩 1층)

### 메가박스

구. 런던역사거리 ☎에이1544-0600

1관	기다리다 미쳐 (15세)	최고급관
2관	내사랑 (12세)	
3관	한글과 그레텔 (12세)	
4관	아메리칸 갱스터 (18세)	
5관	가면 (18세)	
6관	내셔널트러저-비밀의책 (12세)	
7관	더 시크릿 (15세)	
8관	색즉시공2 (18세) / 황금 나침반 (전세)	
9관	P.S.O아이러브유 (15세)	

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데이 할인이 종료됩니다.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 무료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 엔터 시네마

충정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황금나침반 (전세)
2관	옹의주도 미스신 (15세)
3관	마고리업의장난감백화점 (전세)
4관	나는 전설이다 (12세) / 내사랑 (12세)
5관	엘빈과슈퍼밴드 (전세) / 내셔널트러저 (12세)
6관	색즉시공2 (18세)
7관	아메리칸갱스터 (18세)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워너비 주차장 300대\*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상무점과 미디어 시티) 해남점 (무역회관점)

1관	마고리업의장난감백화점 (12세) / 가면 (18세)
2관	내사랑 (12세) / 한글과그레텔 (12세)
3관	엘빈과슈퍼밴드 (전세) / 내셔널트러저 (12세)
4관	내셔널트러저: 비밀의책 (12세)
5관	옹의주도 미스신 (15세)
6관	아메리칸 갱스터 (18세)
7관	황금 나침반 (전세)
8관	색즉시공2 (18세)
9관	나는 전설이다 (12세)
10관	황금나침반 (전세)

\*오전 최대 주점 \*배달서비스 상영합니다 1588-7941  
 콜롬버스해점 (107관) 전편 상영중 상영권리료 별도  
 ~11월 21일 ~ 21일

###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한글과 그레텔 (12세)
2관	나는 전설이다 (12세)
3관	아메리칸 갱스터 (18세)
4관	엘빈과슈퍼밴드-대방 (전세) / 내셔널트러저 (12세)
5관	마고리업의장난감백화점 (전세) / 옹의주도미스신 (15세)
6관	황금 나침반 (전세)
7관	색즉시공2 (18세) / 내사랑 (12세)

\* 매일실사 상영합니다\*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권신사 할인혜택  
 \* 세너스 주차 사무원(2명) 4명(4명)

ARS 전화예매 1544-0070

### 무등극장

충정로 1가 ☎ 232-9106

1관	옹의주도미스신 (15세) / 내사랑 (12세)
2관	아이러브유 (15세)
3관	나는 전설이다 (12세)
4관	색즉시공 시즌2 (18세)
5관	엘빈과슈퍼밴드-대방 (전세) / 내셔널트러저 (12세)
6관	기다리다 미쳐 (15세)
7관	한글과그레텔 (12세) / 가면 (18세)
8관	아메리칸갱스터 (18세) / 아가스트라쉬 (전세)
9관	황금나침반 (전세)

\*리바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문) 3시간 무료주차  
 \* 무료주차 3시간  
 \*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 제일시네마

충정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내사랑 (12세)
2관	황금나침반 (전세)
3관	가면 (18세)
4관	색즉시공2 (18세)
5관	나는 전설이다 (12세)
6관	내셔널 트러저 (12세)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무료주차 3시간 (중주 세무서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